



Flingos II



King





Minotaur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괴물의 실체를 파헤치다

Klecksography 올리비아 발세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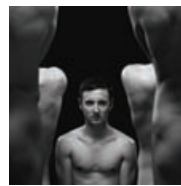


Venus II

우리와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몸'이 아닐까.

사람은 이름을 바꾸거나 소중한 친구를 잃을 때도 있고 때론 멀리 이사를 가기도 하며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며 살아간다. 하지만 죽기 전까지 몸을 바꾸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올리비아 발세치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해 다양한 누드 작업을 해왔다. 그의 작품을 보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사람들의 몸을 모아 만든 또 다른 하나의 형상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무척 궁금해진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몸은 항상 우리와 함께 삶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뇌게 하는 올리비아 발세치의 시리즈 <Klecksography>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자.

■ 최신지 기자



올리비아 발세치 olivier valsecchi

프랑스의 사진작가 올리비아 발세치는 <DUST>, <LES COUPLES> 시리즈를 통해 아름다운 누드사진을 찍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2012년 <FOTOFEVER BRUSSELS(Belgium)>, <Le sacre du printemps(France)>, 2011년 <LINEART(Belgium)>, <Photography and sculpture(Belgium)>, 2010년 <GALERIE FOKUS(Austria)> 등 여러 전시와 세계 각국에서 열린 다양한 포토 페스티벌에 10여 회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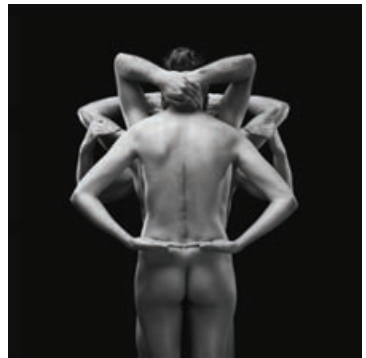
www.oliviervalsecchi.com



Mana II



Mana I



Lotus

시리즈 <Kleksography>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하다.

<Kleksography> 시리즈는 지난 2월에 시작됐다. 핫셀블라드의 세계적인 매니저 폴 워터워스(Paul Waterworth)로부터 내가 <Hasselblad Masters Award>의 순수사진 부문에서 수상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후 3월부터 2달 동안 <Hasselblad Masters Book 2012>의 출판을 위해 '연상'을 테마로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 이 시리즈가 만들어진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케이트 부시의 <The dreaming>이란 노래가 첫 번째 이유다. 이 노래는 정말 이상한 노래다. 서양인에 의해 침략당한 호주 원주민들이 땅속에서 내는 귀신 목소리 같기도 한 이 노래가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맴돌았다. 다른 하나는 사람의 정신적 장애를 검사하는 테스트였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헤르만 로르샤흐(Hermann Rorschach)가 고안한 잉크반점 검사는 결과가 마치 데칼코마니와 같은 형상을 띄고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고 작업으로 발전하기에 충분했다.

<Kleksography>를 통해 전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

인간의 내면에 꿈틀대는 적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스트레스, 두려움, 자신감 결여 등의 심리적 요소들이 자신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이를 주시하며 자신을 해치거나 길들여지지 않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이다.

예를 들어 우울증은 당신을 똥똥하게 만들 수 있고 불안과 걱정은 당신을 마르게 할 수 있다. 이를 사진으로 표현할 때 심각한 무능력함이나 자괴감 등을 특히 과장돼 보이도록 했다. 지난 몇년 간 자신의 매력을 잃거나 자신감을 잃고 빨리 늙어버리는 등 매우 빠른 변화를 맞이한 사람들을 만난 경험이 있다. 이들을 떠올리며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괴물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제어할 수 있도록 육체와 정신을 함께 제시하고자 했다.

내면의 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먼저 내면의 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 적은 당신의 일부이며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리즈엔 모델들의 팔과 다리가 불구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한 몸에 너무 많은 팔이 달려있거나 팔이 전혀 없는 몸의 이미지를 통해 많은 일을 해내는 팔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두 팔과 두 손으로 일을 하지만 항상 더 많은 팔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나는 'the never enough society'라고 부르며 내 안에 있는 짐승의 울부짖음을 듣는다. "아직 부족해" 내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회적 현상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두려움 등이 바로 내면의 적이다.

작업 프로세스를 설명해달라.

첫 촬영에서 단 3장의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다른 이미지들은 또 다른 캐스팅으로 2, 3회 테스트 후 완성됐다. 여러 차례에 걸친 촬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닮은 사람들을 캐스팅하는 것이었다. 모델들에게 각각의 위치를 보여주며 무대에 배치함으로써 이 게임은 시작된다. 이들은 내가 각각의 위치와 포즈를 잡아주는 동안 고정된 자세를 유지해야 했고 내가 말하는 대로 매우 천천히 위아래로 이동하며 반대편과 대칭을 맞춰간다.

모든 이미지가 흑백이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Kleksography>의 촬영은 몇 개의 시체를 나란히 정렬하는 것과 같았다. 모델들은 저마다 다른 피부색을 지니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하나하나 구분해 전체를 보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들이 조각처럼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보일 수 있도록 흑백으로 작업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 시리즈는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작품이다. 최악의 촬영 순간을 소개하자면 <Mana I> 작업을 할 때였다. 이 사진은 비하인드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 2단계의 레벨로 설정돼 있었고 일종의 괴물 머리 형상을 만들어 내는 작업이었다.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두 번이나 재촬영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칭과 조화에 너무 예민하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완성된 작품은 괴물의 형상이 아닌 불 덩어리 같은 엉뚱한 이미지가 돼 있었다. 이 사진이 전혀 괴물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체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12명의 모델들은 괴로워했다. 결국 나는 세 번째 시도에서 작업을 2단계에서 1단계로 단순화해야 했다.

다른 사람의 몸을 이용해 자신의 초상을 표현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사진 속의 사람들이 점프를 하거나 얼어있는 상태로 몇 시간을 버티고 서있는 이유를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모델들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다. 촬영의 끝에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 "나는 매우 지쳤고 뭘 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어" 이 상태를 나는 무아지경이라고 부른다. 그들의 몸은 내 말에 따라 움직이며 나는 그들에게 지칠 때까지 무언가를 요구한다. 몸은 비록 내 몸이 아니지만 내 의지에 따라 움직이고 나타나기 때문에 나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간혹 "이 사진 속에 당신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 최선을 다해 촬영을 마친 나에게 이 말은 최고의 찬사와도 같다. ❏